

중년층의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성별 및 학력 차이를 중심으로

이 정 화 이 옥 순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요약) 본 연구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중년층의 노년기 교육욕구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40~59세의 남녀 424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 참가의사 등의 교육욕구를 탐색한 후, 이러한 교육욕구가 성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건강관리, 취미·여가선용, 행복한 가족관계 등의 교육내용을 주변 사회복지관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욕구가 더 높았고, 학력수준에 따라 희망 교육내용과 선호하는 교육장소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교육욕구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중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노년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Key words: 교육욕구, 노년기 교육, 성차, 중년기, 학력차이]

이 논문은 2005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상기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이정화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신저자(이정화)의 e-mail 주소는 jhlee2@chonnam.ac.kr입니다.

서 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급상승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중년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은 “현재의 중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하는 시기, 또 그 이후의 시기를 대비해서 우리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도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주로 건강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정책, 장수에 좋은 음식, 건강 식단, 운동의 중요성 등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운용, 개인의 노후 경제적 대비를 위한 자산관리방안 등에 집중되어 있다. 비록 우리가 노후준비에 있어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무게중심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노후준비의 차원이 경제문제와 건강문제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다.

우리는 인생주기의 어느 시점에서나 일, 여가, 교육이 균형을 이룬 연령통합사회(age integrated society)를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교육, 중년에는 일, 그리고 생의 후반기에는 많은 시간을 여가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 어느 연령에서든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흥미와 자아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김애순, 2002). 이러한 욕구에 부응해서 일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일반인을 위한 교육 및 여러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오고 있지만, 노년기와 관련된 교육은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년기는 우리 인생에서 그 시기적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양육기간이 길고 수명이 짧아서 인생에서 노년기의 비중이 낮았던 반면, 현대사회에서 자녀수 감소로 자녀 진수기가 빨라지고 자녀양육부담에서 벗어난 중년기가 길어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지면서 노년기가 차지한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듯 노년기가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더욱 더 중요한 시기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발달적 변화에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노년기를 상실이나 쇠퇴의 시기로 예단했을 뿐 그 시기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 Pipher(2000)의 저서 “또 다른 나라”에 노년기가 “누구나 가야할 나라이지만 아무도 그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또 다른 나라”로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노년기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노년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구절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의 노인교육은 대부분 노인을 위한 즉, 노인대상의 취미나 여가활동 관련교육에 치중되어 왔고, 노인과 노화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 그리고 어느 연령층이든 상관없이 학습자 자신의 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다루지 못했다.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고령자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프로그램’도 일반인들에게 ‘노년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노년기의 사회 심리적 변화나 성공적인 노후생애와 같은 노년기의 변화과정을 강의내용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도 역시 이미 노년기에 진입한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차 노인에 관한 교육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잠재 노인인구인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또한 중년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는 성별이나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광주 및 전남지역의 중년층을 중심으로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 참가의사 등을 탐색해보고 또 이러한 교육욕구가 성별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사회가 현재의 중년층, 미래의 노년층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 노년기에 관한 교육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했다. 이러한 접근은 노년기 교육에 관한 중년층의 욕구를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 연구과정과 결과를 통해 현재의 중년층들에게 아직 인식되지 못했던 ‘노년기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도 될 것이다.

중년층과 노년기 준비교육

중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인 동시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다. 이를 계기로 중년기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년기를 보는 시각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긍정적 및 부정적 관점으로 대별된다. 즉 중년기를 다른 생애주기에 비하여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해 양육부담도 감소하며, 또 성취욕이나 생성감에서 인생의 절정기이자 황금기로 보는 입장이 존재한 반면 (Oetting, 1967), 긴장과 상실, 위기감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장하경 · 서병숙, 1991; LeShan, 1973; Livson, 1980). 발달과업의 개념을 도입한 Havighurst(1972)의 입장도 후자에 속할 수 있는데, 그는 중년기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그 절정에 달함과 동시에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도 느끼는 시기 및 개인적 요구나 필요성 뿐 아니라 유기체 내부의 변화와 환경적 압력에 의해 생겨난 사건이 유발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김연화, 1999). 이렇듯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외적 변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는 중년기가 성인기 발달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왕석순 · 서병숙, 1995).

최근 범세계적으로 50대 이후의 노년기를 일컫는 제3연령(the third ag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은퇴 시기인 제3연령 교육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Sadler, 2001).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지난 1993년 제3연령에 관한 카네기위원회(Carnegie Inquiry into the Third Age)의 연구보고서 이후 노인교육 및 훈련을 추구해왔고, 그 후 “Listening to Older people”이라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함과 더불어 “Life begins at 50!”라는 기치를 내걸며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소외된 집단의 하나인 노년층이 겪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여 포용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이자 노인집단의 자립심 회복과 세력화(empowerment)를 위한 교육과 고용 확대의 추진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시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설보호 등 부양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노인층인 제4연령을 위한 교육가능성도 논의될 정도로 노인복지와 노인교육에 대한 접근이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주, 2000).

이러한 논의는 중년기가 발달단계상 특징적인 발달과업이나 성취를 이루어내는 기간이면서 예비노인으로서 노년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로 이해되어야함을 반영해준다. 따라서 이 시기는 노년기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년층의 바람직한 노인상 정립을 위해서도 노년기에 대한 교육이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노인의 특성으로 알려졌던 경제 및 건강 상태의 악화, 외로움과 역할 없음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노년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혹자는 미래의 노인상을 ‘역경을 딛고 생활했으면서도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노인,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인류 역사를 자손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의 노인, 변화하는 사회를 인식하고 정보화, 국제화 의식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노인’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김재인·허현란, 1998), 노년기에 보다 성숙한 생각과 모습을 갖고, 사회나 후세대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년기 변화에 대한 인식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년기 교육이 노년기 생활적응에 필요한 예비지식과 태도형성에 도움을 준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준비된 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 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년기 준비교육은 노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돕는 과정이다. 즉 현재의 노년층뿐만 아니라 예비 노년층이 노후에 변화된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인식하면서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긍정적인 노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적 노년을 위해 노후생활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각하고 있다 (한정란, 2005).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 교육은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노인대상의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단순히

여가를 메워주기 위한 소극적 수단, 즉 취미활동이나 오락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현, 1999).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에 관한 논의는 거의 대부분 노인복지의 틀 속에서 전개된 것들이었다. 교육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며 우리 주위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개념과 일반적인 지식, 취업과 승진 등에 필요한 학습 및 기술 등 물질 및 비물질적 가치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인교육의 의의는 노인복지의 요소로 거론되어 왔다 (김충기, 1997). 또 노인교육을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에 관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때, 지금까지의 노인교육은 주로 노인대상의 노인을 위한 교육에 치중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노인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노년기를 목전에 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에 관한 교육조차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이러한 노후생활의 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노인교육의 준비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노인교육은 퇴직 후 소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차원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년기 준비교육이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에 기초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 교육욕구

한국사회는 10여년 이내에 베이비 붐 세대들이 노년기에 진입하게 될 것인데, 이 무렵의 가장 큰 특징은 고학력자 중심의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비율이 1975년 25%를 겨우 넘었으나, 1997년 60%를 넘어, 2005년에는 82%를 초과한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렇듯 고학력자가 증가하는 노인인구집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거와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는 다른 형태의 노인교육에 관한 욕구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1세기는 노인은 물론 예비노인들까지도 노인교육의 주요 수요자가 되는 본격적인 학습사회로 바뀔 것이다 (Sherron & Lumsden, 1990).

노년기 교육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노년기 교육내용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토대로 신체적·지적·정서적·경제적·사회적 영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고영수, 1993; 박재간·임춘식, 1983; 한정란, 2005). 특히 고영수(1993)는 노년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과내용을 10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① 건강관리와 유지, ② 노년기에 거주할 주택 소유문제, ③ 정년퇴직 후의 재정유지와 위기관리, ④ 여가선용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 (취미활동), ⑤ 노년기의 원만한 부부관계, ⑥ 배우자의 사별과 적응문제, ⑦ 노년기의 자녀들과의 관계, ⑧ 사회변동에 따른 적응에 필요한 정보, ⑨ 노년기의 사회관계 유지와 사회봉사 문제, ⑩ 노년기의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준비 등이다.

또 김재인과 허현란(1998)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교육의 내용으로 ① 노인의 철저한 자기이해 및 노년기의 생활적응, ② 세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증진 및 사회발전에의 기여, ③ 노인들의 자활능력 도모 및 사회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교류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④ 노인의 세력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노인 및 노화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노인들의 학습능력을 폄하하는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노인들의 욕구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사회의 차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해 노년기 생활에 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특히 예비노인의 성공적인 노화과정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Palmore, 1990; Rowe & Kahn, 1998).

노년기 교육욕구를 살펴본 연구들 중에서 실제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거의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들이다 (김경옥, 2005; 선우은정, 2002). 또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분야는 일반교양이나 건강분야에 이어 취미나 오락분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은 일반교양과 취미오락 위주이다 (박석돈, 2000). 그러나 노년기 교육욕구에 따라서 앞으로는 교양이나 건강 분야에 대한 교육확보 및 다양화가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일반교양 교육에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교육수준, 과거의 직업, 가족관계, 사적 경험 등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다.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욕구와 교육프로그램 제공자가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자 분포를 고려하여 노인교육 전문가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역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소도 대상자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사회복지관, 노인대학, 대학의 평생교육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사무소 등 다양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교육대상이 차별화되기도 한다.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관마다 참여자들의 학력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하는 경우 참여자의 약 40%가 대졸자인 반면, 일반 사회복지관에는 80%이상이 중졸자로 구성되었다. 또 은퇴 전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대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는 70%내외가 화이트칼라 직업이었던 반면, 복지관의 경우 블루칼라나 직업이 없었던 대상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돈, 2000).

이는 교육대상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기관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곧 노년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적합한 시설 및 장소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의 40~50대 중장년층 남녀 424명이었으며, 자료는 그들이 반응한 질문지 (노년기교육에 관한 문항들로 그 내용은 결과 편에서 서술함) 반응이었다. 조사지역으로는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도시(광주광역시, 광양시, 순천시)와 농촌(영광읍, 해남읍)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선정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중·고등학교를 할당한 다음, 각 학교에서 임의로 표집하였던 4개 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6년 6월이었으며, 자료 분석은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424부(도시지역 293부로 전체의 69.1%; 읍면지역 131부로 전체의 30.9%)를 토대로 하였다. 조사대상자 성별에 관한 비율은 남성 36.1%($n=153$) 및 여성 63.9%($n=271$)이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대의 분포,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및 종교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구분		<i>n</i>	%
연령	40세-44세	190	44.8
	45세-49세	146	34.4
	50세 이상	88	20.8
교육 수준	중졸이하	57	13.4
	고졸	201	47.4
	대졸이상	166	39.2
월평균소득	200만원 ↓	108	25.5
	200만원 ~ 300만원 ↓	105	24.8
	300만원 ~ 400만원 ↓	83	19.6
	400만원 ↑	128	30.2
종교	없다	142	33.5
	기독교	121	28.5
	천주교	55	13.0
	불교	95	22.4
	기타	11	2.6
계		424	100.0

결 과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

현재 중년층이 노년기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 필요성의 점수범위(1-5)를 토대로 평균 4.15점은 대다수 응답자가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교육 필요성의 점수를 보면, 남성들($M=3.95$, $SD=.95$)보다 여성들($M=4.26$, $SD=.81$)이 노년기를 대비한 교육 필요성을 더 절실하다고 여기는 편이었다 ($F=12.74$, $p<.001$). 이러한 결과는 노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남녀차이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전길양·송현애·고선주·김일명, 2000; 홍기형·나항진, 2002).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에 따라서도 노년기 대비 교육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F=6.57$, $p<.01$), 또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년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점수가 더 높은 편이었다.

희망하는 노년기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건강관리, 취미·여가선용, 행복한 가족관계, 직업관련 교육, 교양·지성함양 교육, 저축·재산증식 교육, 노화·노년기발달교육, 음악 및 예술의 이해, 전문능력개발교육으로 구분하였고, 조사대상자는 이 항목들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3개 항목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조사대상자는 422명이지만 유효빈도 수가 1,210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각 교육내용별 희망하는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선호하는 교육내용 순위를 분석한 결과, 중년층들은 노년기 교육내용 중에서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미·여가선용, 행복한 가족관계, 직업관련 교육, 교양·지성함양 교육, 저축·재산증식 교육, 노화·노년기발달교육, 음악 및 예술의 이해, 전문능력개발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관리와 취미·여가선용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옥(2005)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표 2>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 (N=422)

변인	구분	<i>M (SD)</i>	<i>F</i>
학력	중졸이하	3.82 ^a (.97)	6.57**
	고졸	4.14 ^b (.79)	
	대졸이상	4.30 ^b (.88)	

주. 위첨자로 표기된 영문 알파벳은 Duncan 검증 결과임

* $p < 0.01$

의 조사에서도 중장년층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세대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간관계 교육에도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노인교육 내용으로 단순한 프로그램보다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가 조사대상자의 성별이나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 참조). 각각의 교육영역에 대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에 성차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성차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성차를 보인 영역은 오직 노화(노년기 발달)에 관한 교육이었는데, 여성이 노년기 발달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반응을 비교한 결과,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 노후대비 취미 여가선용교육, 교양 지성함양교육, 음악 및 예술의 이해와 같은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고,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은 저축이나 재산증식, 행복한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관심을 보인다는 김경옥(2005)의 조사내용에서와 유사한 반응에 해당된다.

<표 3> 노년기 희망교육 내용

변 수	빈도	응답비율	순위
건강관리	343	81.3	1
취미·여가선용	277	65.6	2
행복한 가족관계	186	44.1	3
직업관련 교육	161	38.2	4
교양·지성함양	72	17.1	5
저축·재산증식	71	16.8	6
노화·노년기발달교육	48	11.4	7
음악 및 예술의 이해	26	6.2	8
전문능력개발교육	26	6.2	9
총 계	1,210		

주. 응답비율은 전체대상자($n=422$) 중에서의 비율임.

선호하는 노년기 교육장소

다음은 중년층의 교육장소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이다. 여러 개의 교육기관을 제시하고 그 중 어디에서 노인교육을 받고 싶은가를 2곳까지 응답하도록 했으며, 각 항목별 선호비율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선호 교육장소 순위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수록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년기교육의 장소는 사회복지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민간단체(YMCA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포함)이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교육장소가 거주지와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선호하는 교육장소 3위로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에는 현재 여수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개소 있으나, 본 연구대상지역이 아니었고, 광주광역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1개소가 있으나 이곳도 조사당시에는 개소하지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표 4> 성별 및 학력에 따른 노년기 희망교육 내용 [$M(SD)$]

	남성	여성	F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F
취미 여가선용	.65(.48)	.66(.48)	< 1	.46(.50)	.73(.45)	.64(.48)	7.70***
행복한 가족관계	.45(.50)	.43(.50)	< 1	.58(.50)	.44(.50)	.40(.49)	2.68
건강 관리	.79(.41)	.82(.38)	< 1	.81(.40)	.85(.36)	.76(.43)	2.46
저축 재산증식	.16(.37)	.17(.38)	< 1	.25(.43)	.13(.33)	.20(.40)	3.09*
교양지성 함양	.21(.41)	.15(.36)	2.59	.09(.29)	.17(.37)	.21(.41)	2.33
전문능력개발 교육	.07(.26)	.06(.23)	< 1	.04(.19)	.07(.26)	.06(.24)	< 1
직업관련 교육	.38(.49)	.38(.49)	< 1	.42(.50)	.36(.48)	.38(.49)	< 1
음악및 예술의이해	.07(.25)	.06(.24)	< 1	.05(.23)	.04(.18)	.10(.30)	3.25*
노화노년기 발달교육	.07(.26)	.14(.35)	4.16*	.14(.35)	.11(.31)	.10(.30)	< 1

* $p < .05$ *** $p < .001$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방문해본 적이 없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노년기교육을 수강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장소에 대한 선호가 조사대상자의 성별이나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6> 참조). 각각의 교육장소에 대해 선호하는 응답비율로 남녀의 반응을 비교한 결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직장 내 연수교육을 제외하고는 교육장소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교육을 더 선호했던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 내 연수교육 형태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반응

<표 5> 선호하는 노년기교육 장소

변 수	빈도	응답비율	순위
사회복지관	251	59.5	1
동사무소내주민자치센터	182	43.1	2
건강가정지원센터	114	27.0	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84	19.9	4
YMCA등의 민간단체	61	14.5	5
직장내 연수교육	56	13.3	6
종교단체	43	10.2	7
백화점문화센터	21	5.0	8
총 계	812	192.4	

주. 응답비율은 전체대상자($n=422$) 중에서의 비율임.

<표 6> 성별 및 학력에 따른 희망하는 노년기교육 장소 [$M(SD)$]

	남성	여성	F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F
사회복지관	.58(.50)	.60(.49)	< 1	.61(.49)	.67(.47)	.49(.50)	6.36**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17(.38)	.22(.41)	1.27	.14(.35)	.15(.36)	.29(.45)	5.93**
동사무소주 민자치센터	.37(.48)	.47(.50)	4.20*	.40(.50)	.46(.50)	.40(.49)	< 1
백화점 문화센터	.05(.22)	.05(.22)	< 1	.05(.23)	.03(.16)	.07(.26)	2.41
YMCA등 민간단체	.18(.38)	.13(.33)	1.41	.07(.26)	.18(.38)	.14(.35)	2.09
건강가정 지원센터	.28(.45)	.26(.44)	< 1	.37(.49)	.24(.43)	.26(.44)	1.86
직장내 연수교육	.18(.39)	.10(.31)	2.31*	.09(.29)	.10(.30)	.19(.39)	3.46*
종교단체	.09(.29)	.11(.31)	< 1	.09(.29)	.11(.31)	.11(.31)	< 1

* $p < .05$ ** $p < .01$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을 비교한 결과, 선호하는 노년기 교육장소에 대한 학력에 따른 차이는 사회복지관과 대학부설 평생교육관에서 나타났다.

노년기교육 참여의사

연구대상자들의 노년기 교육에 대한 참여의사는 평균 3.96점 ($Range=1\sim5$)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앞에서 제시한 필요성에 대한 지각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중년층의 노년기 교육 참여의사는 높았는데,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더 높은 편이었다 [남성의 평균은 $3.72(SD=1.09)$ 인 반면 여성의 평균은 $4.10(SD=.89)$ 이었음; $F=14.99$, $p<.001$]. 노년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참여의사 역시 여성의 경우 더 높았던 것은 앞으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 교육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학력에 따른 참여의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졸이하의 평균은 $3.96(SD=.94)$, 고졸의 평균은 $3.94(SD=.96)$, 대졸이상의 평균은 $4.00(SD=1.00)$ 이었음; $F<1$].

논 의

본 연구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중년층의 노년기 교육욕구를 분석한 것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광주 전남지역 중년층을 중심으로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 참가의사 등의 교육욕구를 탐색한 후 이러한 교육욕구가 성별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것이었다. 이는 향후 우리사회가 현재의 중년층, 미래의 노년층을 위한 노년기 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제공의 차원에서 시도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노년기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노년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향후 여성노인이 증가하고 또 노인들의 학력이 높아질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점 상승할 것임을 기대하

게 해준다.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는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과반수가 건강관리 및 취미·여가선용에 대한 반응을 했던 점은 현재의 중년층들이 노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여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양이나 지성을 함양하는 교육, 가족관계, 직업관련 교육 등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난 것은 중년층들이 지적인 교육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특히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후대비 취미나 여가선용 교육, 교양이나 지성함양 교육, 음악 및 예술의 이해와 같은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중년층의 이러한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보다 지적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교육이 노년기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장소 선호도에서는 중년기 남녀가 모두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선호했는데, 이는 그곳들이 장소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가장 대중적이라는 점을 의미해준다. 아울러 조사대상자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선호하는 노년기 교육장소로 꼽기도 했는데, 이는 아직까지 이용 경험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활용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호하는 노년기 교육 장소에서 성차가 나타난 곳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년기 이후에도 직장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직장 내 연수교육의 형태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반면, 남성에 비해 중년기 이후까지 직장내 근무할 가능성이 낮은 여성은 남성보다 근접한 거리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나중에 교육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교육장소 선정도 달라져야 함을 의미해준다. 역시 학력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교육 장소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하의 학력집단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선호도가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대학 시설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도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곧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향후 노년기를 맞게 되는 장년층은 노후준비가 더 잘 되어 있으며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적극적인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노년기 교육 참여의사에 대한 질문은 노년기 교육 필요성과 매우 유사한 응답이 나올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참여의사 점수는 필요성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다. 노년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참여를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년층을 위한 노년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욕구는 있으나 선뜻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받도록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직장으로 찾아가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중년층의 노후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의 일부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노인교육이 “노인을 위한 교육”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잠재 노년층인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년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중년층의 노년기 교육욕구를 필요성, 선호하는 교육내용, 장소, 참여의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중년층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의 분석은 부분적으로나마 중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지침 제공의 기능을 발휘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광주 전남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편의표집 방법을 취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고영수 (1993). *혼자 사는 노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백서*.
- 김경옥 (2005).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중장년층의 노후에 대한 인식*

- 과 준비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 (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연화 (1999). *중년기 직장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인 · 허현란 (1998). 여성노인과 여가교육.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161-188.
- 김충기 (1997). 진로교육 실천의 당위성. *한국교육학회*, 33 (6), 1-5.
- 김태현 (1989). 한국노인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한국노년학*, 9, 168-176.
- 박석돈 (2000).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복지행정논총*, 12 (1), 25-45.
- 박재간 · 임춘식 (1983). *노인학교 노인교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보고서.
- 선우은정 (2002). *장년층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주 (2000). 노인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영국의 제3연령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6 (2), 1-22.
- 왕석순 · 서병숙 (1995). 중년기 적응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한국노년학*, 15, 54-73.
- 장하경 · 서병숙 (1991). 성역할 정체감 척도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 (4), 167-179.
- 전길양 · 송현애 · 고선주 · 김일명 (2000). 노년기 준비 교육 프로그램. *한국노년학*, 20 (1), 69-91.
- 한정란 (2005).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기형 · 나항진 (2002). 노인의 학습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51-80.
- Havighurst, R.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
- LeShan, E. (1973). *The wonderful crisis of middle age*. New York: Warner Books.
- Livson, F. (1980). Patterns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middle-

- aged women: A longitudinal study. In J. Hendericks (Ed.), *Being and becoming old*. New York: Baywood Pub.
- Oetting, E. (1967). A developmental defini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4, 383-385.
- Palmore, E. (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 Pipher, M. (2000). *또 다른 나라 (Another Country)*. 서울: 모색 (공경희 역).
- Rowe, J., & Kahn, R.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acorte Press.
- Sadler, W. (2001). *The third age: Six principles for personal growth and rejuvenation after forty*. New York: Perseus Books Group.
- Sherron, R., & Lumsden, D. (1990). *Introduction to educational gerontology* (3rd ed.). New York: Hemisphere.

Educational Needs for Aging of Middle Aged

Jeonghwa Lee Oksoon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500-757

Most studies on educational programs about aging have focused on the elderly people, ignoring the educational needs of middle-aged generation.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eeds from 424 community dwelling middle-aged persons in the southwestern area in Korea.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rated the educational needs on aging high although there were some gender differences in responding. In addition, the higher education level, the more interested in hobby and leisure area as educational contents of old age.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preparing for their late adulthood.

(논문접수일: 2007년 9월 28일)

(수정논문접수일: 2007년 11월 2일)

(논문게재승인일: 2007년 11월 22일)